



K·OTC의 이해



이데일리

2020년 10월 19일 월요일 019면 증권

“상장 전에 짐해두자”… K-OTC 연간 거래대금 1조 돌파

금융투자협회에서 운영하는 장외거래 시장인 K-OTC 시장에서의 연간 거래대금이 지난 15일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계기로 중시에 유입된 투자자들의 관심이 비상장 주식으로 몰리며 나타난 현상으로 풀이된다.

18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5일 K-OTC 시장에서의 연간 거래대금은 1조원을 돌파했다. 이는 2014년 K-OTC 시장이 운영되기 시작한 이후 사상 처음이다. 지난해 거래대금 9904억원을 기록한데 이어 올해 들어서는 10월에 연중 1조원 달성을 성공했다.

K-OTC 시장은 금융투자협회에서 운영을 전담하고 있으며 중소, 중견기업 소액주주 대상 양도소득세 면제와 증권거래세 인하 등의 혜택이 가능하다. 또한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등을 통한 거래 편의성도 갖추고 있다.

또 올해에만 10개 기업이 새로 상장하는 등 시장 자체도 성장세다. 실제 K-OTC 시장에서 유가증권(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으로 이전 상장하는 기업들의 모습도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 한국거래소에서 운영하는 ‘코넥스 시장’처럼 성장성 있는 기업들이 정규 시장으로 넘어

신규 유입 투자자 비상장주식 관심 정규시장 진출도 늘어 ‘성장세’ 주목



갈 수 있는 교두보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셈이다.

앞서 지난해에는 웹케시, 피피아이, 지누스(코스피) 총 3곳의 기업이 정규 시장으로 진출했으며, 올해엔 1곳이 코스닥 시장으로 이전했고, 현재 2곳의 기업이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3월 상장한 서울바이오시스는 K-OTC 기업 중 올해 처음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이전했다. 이 회사는 서울반도체의 자회사로 자외선(UV) 발광 다이오드(LED) 부문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희망밴드 6500~7500원의

최상단에 공모가를 결정한 이후 943대 1이라는 높은 청약 경쟁률을 보이며 성공적으로 코스닥 시장에 안착했다.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16일 종가는 전 거래일 대비 1.80%(350원) 내린 1만 9050원으로 공모가를 약 154% 가량 웃들고 있다.

이어 면역진단, 디지털 헬스케어 업체 오상헬스케어, 보험 상품 비교분석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에이플러스에셋어드バイ저(에이플러스에셋)은 각각 코스닥, 코스피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

오상헬스케어는 8월 14일 코스닥 상장을 위한 예비심사를 청구했다. 지난해에는 약 15억원의 영업손실을 냈지만 올해 ‘코로나19진단키트’ 효과로 수혜를 입었다.

또한 지난 14일 증권신고서를 제출, 코스피 상장을 준비중인 에이플러스에셋은 보험사들의 상품을 비교·분석,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독립법인보험대리점(GA) 전문 기업이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공모주가 활성화되는 만큼 K-OTC 등 장외기업 투자 자체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며 “보다 높은 수익률, 상장 전부터 ‘될 종목’을 찾는 움직임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권효중 기자 khjing@



朝鮮日報

장외시장서 카카오게임즈 7만원대, 살까말까?

조선경제

2020년 9월 4일 금요일

B6

공모주 청약 열풍에 개미들
 ‘웃돈’ 주고 장외시장으로 몰려
 장외주식 까다로운 심사 안거쳐
 8월 하루 74억원 거래, 급증세
 “정보 적고 가격 변동 커 조심을”

최근 SK바이오팜과 카카오게임즈 등 인기 있는 공모주를 배당받는 게 ‘하늘의 별 따기’가 되면서 개미 투자자들이 장외 주식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장외 주식이란 증시에 아직 상장되지 않은 주식으로 주로 초기 투자자나 임직원 등 기업 관계자들이 소유하고 있다. 장외 주식을 사는 사람은 주로 장래성 있는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싶거나, 상장 후 주가 상승이 예상되는 종목을 구입하려는 투자자들이다. 장외 주식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이를 중개하는 민간 플랫폼도 늘고 있다. 하지만 장외 주식은 상장 주식보다 투자 손실 위험이 크고 거래도 잘 안 되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1억 넣고 5주 받을 바에야 웃돈 주고 500주 산다

7월 코스피 시장에 상장한 SK바이오팜의 주가가 수직 상승하면서 공모주에 대한 관심은 급격히 높아졌다. 하지만 공모주를 사려는 사람이 워낙 많다 보니 일반 청약을 통해 개인이 살 수 있는 수량은 극히 제한적이다. 1억원을 청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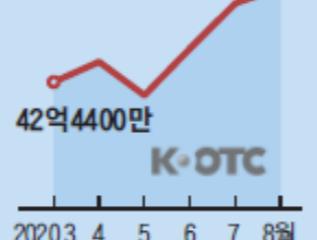
K-OTC 장외시장 개요	
운영 주체	출범일
금융투자협회	2014년 8월
종목 수	시가총액
139개	15조3320억원

- 주요 등록 요건
- ① 자본 전액 임직 상태가 아닐 것
 - ②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이 5억원 이상일 것
 - ③ 감사인의 감사 의견이 적정일 것



K-OTC 장외시장 일평균 거래 대금

74억800만원



‘증권플러스 비상장’ 월간 활성 이용자 증가 추이

자료=금융투자협회

8월 9만3000명



증거금으로 납입해도 SK바이오팜은 13주밖에 받지 못했고, 카카오게임즈는 58조원이 넘는 증거금이 몰리면서 배정 물량이 5주로 줄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최근 주머니가 가벼운 개미들을 중심으로 장외주식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상장을 앞둔 장외 주식의 경우 공모가보다 높은 금액을 지불해야 하긴 하지만, 수천만원의 증거금을 납입할 필요 없이 간단히 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가상화폐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삼성증권과 함께 출시한 비상장 주식 거래 애플리케이션 ‘증권플러스 비상장’에서 카카오게임즈 비상장 주식

은 지난 1~2일 총 544건 거래됐다. 작년 11월 앱 출시 이후 카카오게임즈 비상장 주식 거래량은 총 7407건이었는데, 이 중 7.3%가 최근 이를 사이에 거래된 것이다. 3일 현재 이 앱에서 카카오게임즈의 주가는 공모가(2만4000원) 보다 3배 이상 높은 7만6000원대에 형성돼 있다. 상장 후 주가가 이보다 더 오를 것이란 기대감이 반영된 것이다. 오는 11일 코스닥 상장이 이뤄지면 카카오게임즈는 더 이상 비상장 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장외 거래는 10일까지만 이뤄진다.

국내에 본격적으로 장외 주식시장이 열린 것은 2014년 8월 금융투자협회가

◇정보 공개 적고 가격 변동성 커… 투자 유의해야

최근엔 비상장 주식 거래를 중개하는 민간 플랫폼도 여럿 생기고 있다. ‘증권플러스 비상장’을 비롯해 피에스엑스(PSX)라는 스타트업이 만든 ‘판교거래소’, 유안타증권이 만든 ‘비상장레이더’, 코리아에셋투자증권이 만든 ‘네고스탁’ 등이다. 증권플러스 비상장의 경우 실제 앱을 이용한 고객 수가 지난 3월 1만7000명 수준이었으나 지난달에는 9만3000명에 달할 정도로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매도자와 매수자를 가격, 시간 순으로 자동 매칭해 실시간으로 거래되는 K-OTC와 달리, 민간 플랫폼에서의 거래는 대개 개인이 게시판에 올라온 글을 보고 스스로 거래 상대방을 찾거나, 운영자 측이 조건이 일치하는 당사자를 찾아 일일이 연결해주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장외 주식이 뛴다고 무턱대고 투자하는 것은 금물이다. 상장 주식은 자기자본 300억원 이상, 최근 연매출액 1000억원 이상 등 까다로운 심사를 거치는 반면, 비상장 종목은 이런 검증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상장 주식에 대한 금융 당국의 감시와 공시 의무도 비상장 종목엔 적용되지 않는다. 이환태 금융투자협회 K-OTC 부장은 “비상장 주식은 가격 변동성이 크고 공개되는 정보량이 적기 때문에 투자자는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준우 기자



매일경제

2020년 09월 09일 수요일 A24면 증권

“예비 상장주 미리 선점하자” 쩐의 전쟁터 된 K-OTC 시장

<장외주식거래>

청약보다 물량 확보 더 쉬워
올 3월보다 시총 5조원 늘어
제2 카카오게임즈 찾기 후끈

카카오게임즈가 60조원에 가까운 청약증거금을 쓸어 모으며 기업공개(IPO) 시장의 기록을 새로 쓰자 다음 흥행 타자를 장외에서 일찌감치 발견하려는 시도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8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해 3월 10조8364원이던 K-OTC 시가총액은 7일 15조5375억원으로 43% 늘어나며 올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다. K-OTC 시장 종목들을 ‘예비 IPO군’으로 보고 경쟁력 있는 종목을 미리 선점하려는 수요가 물린 영향으로 분석된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공모가 흥행할수록 투입한 증거금 대비 실제 손에 쥐는 주식 수가 적어진다는 점을 체감한 투자자들이 장외시장에서 ‘흙 속의 진주 찾기’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K-OTC 등 장외 시장은 거액의 증거금을 낼 필요 없이 실제 매수하고자 하는 주식 규모에 해당하는 금액만 납입하면 된다.

실제 SK바이오팜과 카카오게임즈는 각각 323대1, 1525대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면서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투자자들 불만이 나왔다.



각각 증거금으로 1억원씩 넣었다고 가정할 때 실제 배정받은 주식은 SK바이오팜의 경우 13주, 카카오게임즈는 5주에 불과했다.

다만 비상장 종목의 경우, 기업 밸류에이션이나 경영 상황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또 상장기업만큼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주가가 실적 대비 평가되기도 쉽다. 이 경우 주가가 재평가되는 과정에서 급락할 위험이 있다.

K-OTC는 비상장 주식의 매매를 위해 금융투자협회가 제도화한 국내 장외주식 시장이다. K-OTC 시장에 진입하려면 감사의견 적정 판정을 받아야 하고 매출액이 5억원 이상 돼야 하며 완전자본잠식에 해당되지 않는 등 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흥해진 기자

아시아경제

2020년 07월 24일 18면

세제혜택 날개단 ‘K-OTC’

<장외주식거래시장>

0.23%, 2023년에는 총 0.1%포인트가 낮아진 0.15%를 내게 된다. 거래소가 제공하는 비상장주식시장인 코넥스는 현행 거래세인 0.1%가 유지돼 K-OTC 보다 0.05%포인트 더 낮다.

이번 개정으로 K-OTC 시장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코넥스와 같은 세제 혜택을 받게 되면서 K-OTC 시장에 대한 투자 규모가 지금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아울러 하반기 금융위원회가 K-OTC 시장에 대한 제도개선을 예고한 만큼 시장에 참여하려는 기업 수도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투자자가 K-OTC 시장에서 비상장기업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청약 권리유자 수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투자자간 거래가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매출행위로 간주돼 사모로 자금을 모을 수 없었던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최근 K-OTC 시장은 증시 호황과 맞물려 유동성이 크게 늘어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잠시 주춤했던 거래대금은 올해 들어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K-OTC 시장의 상장된 137개 종목에 대한 거래대금은 월별 기준 지난달 1179억 4095만원, 이달 1127억 1774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민지 기자 ming@



머니투데이

2020년 06월 11일 목요일 026면 증권

유동성 '샤워효과' 장외시장도 들썩

시중에 돈이 넘쳐나자 장외시장까지 들썩인다. 코로나19(COVID-19) 이후 급등한 국내 증시 훈풍이 장외시장으로 확대됐다.

◇6월 하루평균 거래대금 52억원…전달보다 약 37% 증가=10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이날 기준 K-OTC 시가총액은 14조750 억원이다. 지난 3월 11조4053억 원을 기록한 후 4월 12조2520억 원, 5월 13조3260억원으로 확대 됐다.

K-OTC는 2014년 금융투자협회가 설립해 운영하는 유일한 제

도권 장외주식시장이다. 중소기업을 포함해 대기업과 중견기업 까지 많은 비상장기업의 주식이 거래된다. 현재 131개 법인의 133개 종목이 K-OTC 시장에서 거래된다.

하루평균 거래대금도 늘었다. 지난 2월 29억원이던 하루평균 거래대금은 3월 42억원, 4월 49

차지했다.
◇낮은 거래장벽·잇단 IPO 성공…동학개미 모험자본 몰려=별다른 거래장벽이 없다는 점은 K-OTC의 매력 중 하나다. K-OTC 지정종목은 미래에셋대우, 삼성증권, 키움증권, KB증권, 교보증권 등 국내 대부분 증권사의 HTS(홈트레이딩시스템)와 MTS

생명과학과 비보존 등도 상장을 추진 중이다.

◇'제3의 시장' 코넥스…높은 진입장벽·혜택 없는 이전상장=K-OTC의 당치가 커지는 동안 '제3 시장'인 코넥스는 상대적으로 부진한 성적을 거뒀다. 지난 5월 코넥스의 시가총액은 4조8345억원으로 2134억원 늘어나는데 그쳤다. 하루평균 거래대금도 36억원(5월 기준)으로 4월(28억원)보다 늘긴 했지만 증가폭이 크진 않았다.

우선 높은 진입장벽이 문제다. 일반 투자자가 코넥스 종목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기본예탁금으로 3000만원을 예치해야 한다. 이마저도 지난해 1월 코넥스 활성화 조치로 낮아진 것으로 이전 까지는 1억원을 예치해야 했다.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으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없다는 점도 투자 매력을 떨어뜨린다. K-OTC의 상장이 IPO를 뜻한다면 코넥스는 이전상장을 뜻한다. 판만 커졌을 뿐 투자자들이 이전상장과 동시에 느낄 수 있는 혜택은 기대보다 크지 않다.

코넥스 관계자는 "코넥스는 코스피와 코스닥 등 더 큰 시장으로 나아가기 위한 일종의 '사관학교'"라며 "시장 특성상 거래량이 적을 수밖에 없고 이것만 가지고 가치판단을 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태현 기자 thkim124@

K-OTC 시가총액 14조 달해… 석달새 2.6조↑ 日평균 거래대금 52억… 제약·바이오 전체 80%

낮은 거래장벽·잇단 IPO 성공사례 등 매력요인 코넥스는 상대적 부진… 예탁금 등 진입 어려워

억원으로 늘었다. 5월에는 38억 원으로 주춤했지만 6월 52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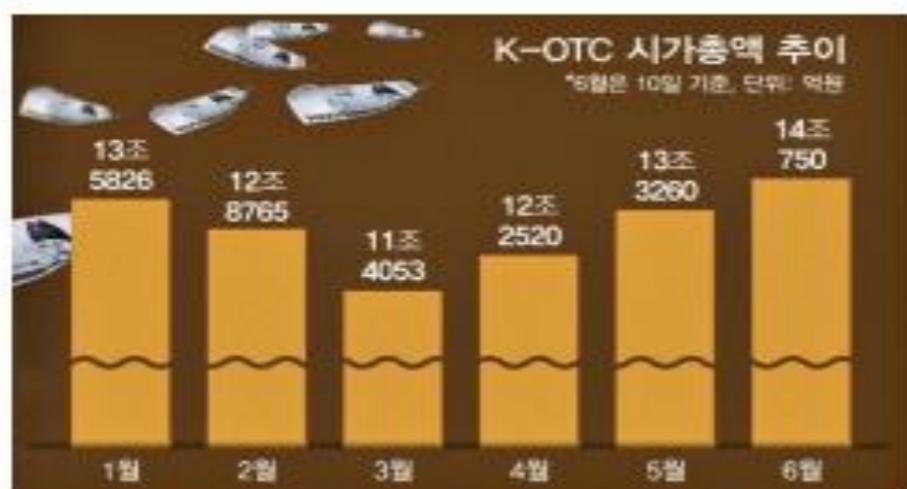
K-OTC 관계자는 "지난해 지누스와 피피아이, 올해 서울바이오시스 등 K-OTC 지정기업들이 코스피와 코스닥에 신규 상장되면서 시가총액이 지난해보다 즐긴 했지만 코로나19 이후 자금유입이 되살아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거래대금은 제약·바이오기업에 몰렸다. 지난 5월 기준 오성헬스케어의 거래대금은 259억원, 비보존 213억원, 와이디생명과학 103억원으로 전체의 80%를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에서 매매할 수 있다.

거래시간은 장내 시장과 동일하게 오전 9시 개장, 오후 3시30분 마감이다. 다만 경쟁매매가 아닌 상대매매로 이뤄진다는 게 장내 시장과 차이다. 매수 측과 매도 측이 서로 호가를 제시해 가격이 맞을 경우에만 거래가 성사되는 방식이다.

잇단 K-OTC 지정기업의 성공적인 코스피·코스닥 상장 사례도 투자가 몰리는 요인이다. K-OTC 출범 이후 현재까지 삼성SDS, 제주항공, 카페24 등 13개 기업이 이곳을 거쳐 상장했다. 와이디





매일경제

2019년 11월 11일 월요일 A25면 증권

알짜 바이오 많네 … K-OTC 거래 사상최고

<한국장외주식시장>

국내유일 비상장사 전문 시장
하루 거래대금 쏙…158억 달해
비보존 등 유망 제약사 포진
코스닥 시총상위 맞먹는 몸값

공매도 등 공격에 노출 적고
투자자 稅혜택 등 장점 많아

2014년 장외시장(프리보드)을 확대 개편해 출시된 한국장외주식시장(K-OTC)에 최근 ‘알짜’ 바이오의약 기업이 다수 들어오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K-OTC는 지난 9월 누적 거래대금 2조원을 달성한데 이어 지난 5일 비보존 등 바이오의약 기업의 활약에 힘입어 일일 거래대금이 158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시장 출범 이래 최고치다. 비상장 바이오주를 상장 전에 확보하려는 투자자들의 수요가 투명한 거래가 보장되는 K-OTC로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

10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현재 K-OTC에서 거래되는 12개 바이오의약 기업 중 9개는 작년 이후 편입됐다. 비보존, 와이디생명과학, 메디포럼 등이 대표적이다. 이 중 제약회사 비보존은 다음달 비마약성 진통제 ‘오피란제린’ 임상 3상 결과 공개를 앞두고 관심을 끌면서 최근 K-OTC 시장의 일일 거래대금 급등세를 견인했다.

K-OTC에 등록된 바이오기업의 시



가총액을 보면 비보존이 1조8151억 원, 삼성메디슨이 8906억원, 콜마파마는 2966억원으로 코스닥 상위 바이오 기업의 시총과 맞먹는 기업도 많다.

국내 유일 제도권 장외시장으로서 비교적 투명한 거래 환경이 바이오의약 기업과 투자자를 끌어들이는 배경이 됐다는 평가다. 바이오제약 상장회사들은 연구개발(R&D) 성과에 따라 주가가 요동치는 데다 공매도 거래의 타깃이 되면서 곤욕을 치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비상장주식은 상대적으로 단타를 노린 주가 조작 세력에 노출될 위험이 줄어든다.

일반적으로 비상장주식 거래의 문

제는 대부분 정규 시장을 통하지 않고 사설 중개업자들에 의해 이뤄지기 때문에 가격 체계와 결제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K-OTC의 강점은 증권사를 통해 안정적인 거래 환경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환태 금융투자협회 K-OTC 부장은 “정규 시장을 통하지 않고 비상장주식을 거래할 경우 현금 지급이 늦어진다거나 주식 입고가 불이행되는 등 거래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며 “K-OTC는 증권사를 통해 결제 안정성과 거래 편의성을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작년 6월 K-OTC에 편입된 비보존 관계자는 “주가 왜곡을 피하고 거래 투명성을 확보해 주주

들의 투자 위험을 최소화하고자 K-OTC에 등록하게 됐다”고 밝혔다. K-OTC 등록을 희망하는 회사가 점차 늘고 있는 점도 긍정적이다.

K-OTC에서 주식이 거래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등록요건을 충족한 회사가 직접 등록하는 방법이 있다. 둘째는 요건을 충족했는데도 등록하지 않은 기업들을 금융투자협회가 임의로 지정하는 방식이다. 주식 공모 전력이 있는 기업은 협회가 지정하면 사실상 강제적으로 거래가 이뤄진다. 공모 전력이 없는 경우 협회의 임의 지정에 동의한 기업에 한해 K-OTC 거래가 가능하다.

이렇게 편입된 기업들 중 바이오의약 업체들은 K-OTC의 효자 종목 노릇을 꼭꼭 키우고 있다. 지난 8일 기준 K-OTC 시장에서 거래되는 바이오의약 기업 12개의 시총은 전체 시장의 4분의 1에 육박했다.

작년 초부터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등 세제 혜택도 투자 활성화 요인이 되고 있다. 중소기업 입장에서 상장 전부터 거래 기록을 쌓아 안정적인 상장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한편 K-OTC 시장에서는 136개 종목이 거래되고 있으며 시총은 15조 3124억원에 달한다. 이는 한국거래소 코스닥 상장 요건을 갖추지 못한 초기 중소·벤처기업이 상장하는 코넥스 시장 규모인 5조4934억원의 세 배에 달한다.

문가영 기자



서울경제

2019년 07월 08일 월요일 A23면 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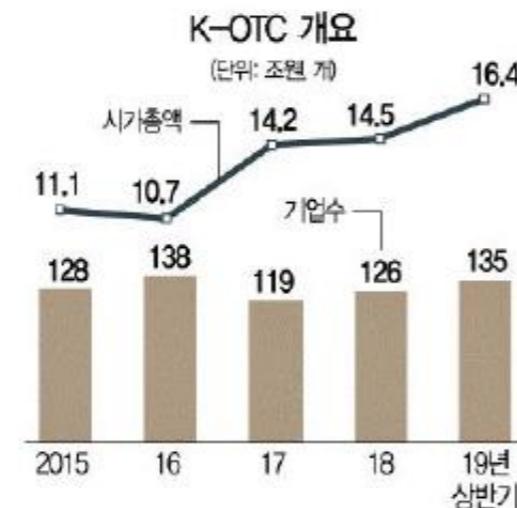
거래대금 2년새 2.5배…쑥쑥 크는 K-OTC

<비상장주식 거래시장>

코스피·코스닥 상장성공 잇따라
소액주주 양도세 면제도 장점
하루 평균 25억 6,000만원 거래
기업수 늘고 시가총액 16조 넘어
투자정보·참여기업 부족은 과제

주식시장 부진 속에도 비상장주식 거래 시장인 K-OTC가 무럭무럭 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들이 상장하면서 높은 수익을 거두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진 까닭이다. 올 들어 시가총액은 16조원을 넘어섰고, 넷마블네오, 메디포럼 등의 기업들이 입성하면서 거래 기업도 135곳까지 늘었다.

7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K-OTC의 일 평균 거래대금은 27억원으로 올 1월 24억 9,000만원보다 8.4% 증가했다. 특히 이달 2일에는 104억 8,000만원이 거래되면서 역대 세 번째로 많은 거래액을 기록했다. K-OTC의 거래규모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2016년만 해도 일평균 거래금액이 6억 5,000만원에 그쳤지만 2017년 10억 9,000만원, 2018년 27억 7,000만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올



상반기는 평균 25억 6,000만원을 기록 중이다.

이 같이 거래가 증가한 이유는 K-OTC에서 코스피와 코스닥으로 옮겨 성공적으로 상장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다양한 중소기업들이 K-OTC 시장에 꾸준히 입성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올 상반기에는 웹케시, 지난해에는 카페24가 코스닥에 상장하면서 주가가 급등했다. 올 거래금액 1위인 비보존은 최근 기술특례상장에 실패하긴 했으나 비마약성 진통제 신약 개발업체로 주목받고 있다. 2위 업체인 지누스는 매트리스 제조업체로 올 하반기 코스피 상장을 노리고 있다. 지누스는 올 들어 K-OTC에서 주가가 40% 가량 뛰었다.

올 상반기 K-OTC 거래상위 종목

종목	거래량 (억원)
비보존	1,166
지누스	567
메디포럼	284
아리바이오	185
현대아산	180
와이다생명과학	161
삼성메디슨	100
웹케시	68

올 들어서도 9곳의 기업이 K-OTC 시장에 진입하면서 K-OTC 거래 기업은 총 134곳이 됐다. 이중 넷마블 대표 자회사인 넷마블네오, 대회제약 자회사로 필러 판매를 하는 리독스바이오, 자궁경부암 진단시약 개발사인 메디포럼, 임플란트 제조유통업체인 메가젠임플란트, 데이터센터용 광수신모듈 제조사인 피피아이 등이 관심이 높다. 김상교 카움증권 성장기업분석팀장은 “K-OTC 기업 일부는 코스피, 코스닥 상장사 못지않게 알짜 기업”이라며 “특히 최근 기업공개(IPO) 공모가격에 거품이 끼면서 투자자들이 더 큰 수익을 위해 비상장 주식에 눈을 돌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전체 시총은 지난해 14조 5,000억원에서

이달 2일 16조 4,000억원으로 13% 이상 증가했다.

특히 K-OTC 관심이 높아진 이유는 지난해 초부터 소액주주 대상 양도세 면제가 시행된 점도 주 원인으로 꼽힌다. 현재 비상장주식은 중소기업의 경우 양도차익의 10%, 그외 기업은 20%를 세금으로 내야 하지만, K-OTC에서 거래할 경우 면제된다. 또 비상장 주식거래 사기로부터 안전하다는 점도 장점이다. 이희진 청담동 주식부자 사건이나 필립에셋 사기 사건은 장외주식 불법거래를 통해 벌어진 사건이다.

다만, 부족한 투자정보와 여전히 부족한 기업 수는 K-OTC 시장의 추가 활성화를 위해 해결해야 할 점이다. 금융투자협회는 키움증권, IBK증권, SK증권에 의뢰해 기업분석 보고서를 발간하고 K-OTC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김상교 팀장은 “투자자들이 옥석을 가려 투자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많은 정보가 제공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LG CNS, 바디프렌드, 한국증권금융, 현대엔지니어링 등 장외 대어들이 K-OTC에 등록하지 않는 점도 시장 활성화에 제약요인이라는 지적이 있다. /이혜진기자 hasim@sedaily.com



문화일보

2019년 02월 21일 목요일 020면 종합

덩치 커지는 K-OTC... '증권사 앱'으로도 거래

<금투협이 개설한 장외주식시장>

비상장주식 거래 매년 증가세

증시 변동성이 높은 가운데 최근 비상장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투자 성공 사례와 혁신성장 드라이브에 따른 세계 혜택과 같은 정책이 이어지며 올해는 비상장주식의 매매도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공신력 있는 플랫폼을 통해 성장성 있는 기업인지를 꼼꼼히 살펴 투자한다면 회사의 성장과 함께 높은 수익을 거둘 수도 있는 투자라는 것이 금융투자업계의 설명이다.



◆세계 혜택과 성공 사례로 참여 기업·거래 대금 '쑥' ↑

비상장주식은 증권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주식, 즉 상장하지 않은 기업의 주식으로 장외에서 거래된다. 대표적인 플랫폼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개설한 한국장외주식시장(K-OTC)이다. 금투협에 따르면 지난해 K-OTC 거래 대금은 6755억 1000만 원으로 전년의 2637억 7000만 원 대비 1.5배가 늘었다. 일 평균 거래 대금 역시 27억 7000만 원으로 전년 10억 9000만 원 대비 2.6배로 증가했다. 누적 거래액도 1조 5000억 원으로 빠르게 늘고 있다. K-OTC 시장의 전체 기업 수는 126개로, 등록기업은 32개, 지정기업은 94개다. 신규 기업 수는 전년 대비 3배 증가한 18개가 시장에 편입됐고, 이중 등록기업은 4개, 지정기업은 14개였다.

특히 지난해 1월 소액주주에 대한 양도세 면제 대상을 확대한 이후 중소·벤처 및 중견기업을 중심으로 거래가 형성됐다. 이를 기업의 주식이 전체 거래대금 6755억 원 가운데 85.7%에 달했다. 지난해 말 양도세 면제 대상 기업 수도 126개사의 66.7%인 84곳으로 이는 전년 말(19.3%)보다 크게 늘었다. 지난해 카페24, 파워넷 등 총 2개사가 코스닥 시장으로 상장한 데 이어 올 들어 웹케시가 상장했으며 네오플러스는 상장 예비심사를 통과하고 상장 절차가 진행 중이다.

지난 2014년 8월 K-OTC 시장 출범 이후 총 상장 기업 수는 9개사로 증가했다. K-OTC에서 상장한 기업들은 이를 두 곳 외에 삼성SDS, 미래에셋생명, 씨트리, 제주항공, 우성아이비, 인산가, 팩스넷 등이다.

벤처육성 등 혁신성장 흐름에 소액주주 양도세 면제 확대도 작년 거래대금 1.5배 늘어나

투자자들 관심에 참여 기업 ↑
“해당 회사 재무상황 살펴보고
공신력 갖춘 플랫폼 이용해야”

◆비상장주식, 어떻게 투자하나

장외주식 거래방법은 K-OTC와 장외주식정보 사이트 혹은 다른 일대일 경로를 통해 거래하는 방법 등이 있다. K-OTC에서 거래되는 종목은 상장 종목처럼 증권사 흠풀레이딩시스템(HTS)을 이용해 쉽게 거래할 수 있다. K-OTC에서 매

매 체결은 상대 매매 방식으로 매도 호가와 매수 호가의 가격이 일치하는 경우 일치 수량 범위 내에서 자동으로 매매가 체결된다. 하루 동안 가격이 변동할 수 있는 폭은 기준 가격 대비 상승·하락폭의 30%까지다.

◆투자자들의 사전 점검은 필수

금투협 측은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참여 기업의 수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K-OTC는 상장 공모가 및 거래 당일 가격의 안정성 면에서 투자자와 기업에 매력적이라는 평가도 있다. 금투협 조사에 따르면 K-OTC를 거쳐 코스피나 코스닥으로 이전해 상장한 종목은 거래 당일 가격과 K-OTC 시장의 마지막 거래일 가격 간 고리율이 상대적으로 작았다. 이환태 금투협 K-OTC 부장은 “K-OTC는 기업 가치를 가늠할 수 있는 시장으로서 평가를 받고 있으며 상장 이

전 기업 중에 투명성과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참여 의사를 밝혀 오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의 투자를 받은 알리바바나 카페 24는 대표적인 장외주식 성공사례다. 그러나 흔한 사례는 아니다. 금융투자업계에서 장외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기업은 1만여 개로 추산되나 이 중 상장에 성공하는 기업은 매년 1%에도 미지지 못한다. 심지어 일명 ‘청담동 주식 부자 사건’ 등 사기 사건이 벌어질 수도 있어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도 요구된다.

금투협 관계자는 “장외 주식에 투자할 경우 해당 회사의 재무 상태 등 관련 경영 상황을 잘 파악해야 한다”면서 “특히 정보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공신력 있는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박세영 기자 go@



헤럴드 경제

2018년 04월 16일 월요일 008면 종합

이전상장 기업 주가가 궁금해?…K-OTC에 물어봐!

<Korea over-the-counter:장외주식 거래시장>

지난달 누적거래대금 1조원을 돌파한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장외주식 거래 시장인 K-OTC(Korea over-the-counter)가 시장가격 발견 가능이 탁월한 것으로 확인돼 주목된다. K-OTC에서 코스피나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한 종목의 첫날 가격이 K-OTC의 마지막 거래일 가격에 수렴하는 현상을 보여 투자자에게 의미 있는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K-OTC가 폭발적인 성장세를 이룬 외에도 특정 종목에 거래 쏠림이 나타나고, 작년 한해 동안 전체 거래종목의 20%가 퇴출되는 등 '양극화'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K-OTC, 코넥스보다 적정주가 산정 기능 탁월 해=K-OTC 개설 이후 이 시장을 거쳐 코스피, 코스닥 시장으로 이전 상장한 기업은 삼성SDS, 우성아이비, 미래에셋생명, 제주항공, 씨트리, 팩스넷, 카페24 등 총 7개 곳(메리츠종금증권으로 퍼흡수합병된 아이엠투자증권 제외) 이를 종목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K-OTC의 최종 거래 가격과 이전 상장 당일 종가간 과리율은 해당종목의 공모가와 당일 종가간 과리율보다 훨씬 작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공모가와 해당종목의 상장일 종가간 과리율은 커다. 삼성SDS의 공모가는 19만원이었으나 상장일 종가는 32만7500원(과리율 72.4%)이었다. 제주항공의 공모가는 3만원이었던 반면 상장일 종가는 4만8100원(과리율 60.3%)이었다. 가장 최근 코스닥에 이전 상장한 카페24의 경우도 공모가가 5만7000원이었던 반면 상장일 종가는 8만4700원(과리율 48.6%)에 달했다. 총 7개 기업의 상장일 종가와 공모가간 과리율은 60.8%였다.

이에 비해 K-OTC의 적정가격 발견기능은 훨씬 뛰어났다. 삼성SDS의 이전 상장 전일

누적 거래대금 1兆 돌파 폭발적 성장세

7개사 이전 첫날 주가 최종주가에 수렴

적정주가 '족집게'…투자자 길라잡이役

특정종목 거래쏠림·퇴출사 증가는 한계

소·중견기업 수는 전체의 67.3%인 78개사에 달한다.

▶'양극화'가 한계=K-OTC가 이처럼 폭발적인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지만, '양극화' 문제는 여전했다. K-OTC에서 대기업 계열사로 분류되는 기업은 전체의 22.4%인 26개사에 불과 하지만, 이들이 전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년말 기준 58.8%에 달했다.

특히 K-OTC 거래대금 상위 10개 종목의 거래대금이 총 거래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기준 51.7%에 달했다. 거래대금 1위인 지누스의 비중이 27.2%, 2위인 삼성메디슨의 비중이 14.1%, 3위인 현대아산의 비중이 4%였다. 반면 작년 한해 동안 K-OTC에서 퇴출된 기업수는 21%에 달해 기타 종목의 불안정성이 매우 커졌다. K-OTC 총 기업 대비 퇴출 기업 수 비율(이전 상장으로 인한 해제기업 제외)은 2015년 10.2%에서 2016년 3.6%로 감소했다가 지난해 21.6%로 다시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동안 K-OTC에서 퇴출된 기업의 사유는 정기공시서류(감사보고서 포함) 미제출이 15건, 자본 전액 잡식 13건, 소액주주 요건 미달 10건, 타법인에 퍼흡수 합병 8건이었다. 오는 19~20일에는 쎄니팡, 퀸텀에너지, 와이더생명 과학, 해피드림이 감사의견 부적정·거절 등의 이유로 등록 해제될 예정이다.

한재영 금투협 K-OTC부 부장은 "지난 2014년 K-OTC를 출범하면서 소액주주가 50명 이상 있어야 한다는 요건을 도입했는데, 이에 대한 유예기간 3년이 도래하면서 지난해 퇴출기업수가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제외한 지난해 총기업 대비 퇴출 기업수 비율은 14.2% 수준이다.

윤호·최준선 기자/younknow@heraldcorp.com

올해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는 K-OTC의 종

K•OTC?

Contents

- 
- I. K-OTC 시장 주요현황
 - II. K-OTC 시장 개요
 - III. K-OTC 시장
 - 1) K-OTC시장 등록 및 지정제도
 - 2) K-OTC시장 매매거래제도
 - 3) K-OTC시장 공시제도 개요
 - IV. K-OTC 진입 기대효과



I. K-OTC 시장 주요현황



■ K-OTC시장 기업수는 총 134社(136종목), 시가총액은 16.1조원('20.11.30일 기준)

▶ K-OTC시장 출범 후 총 누적거래대금은 3조 6,565억원, 일평균거래대금은 23.7억원 ('14.8.25~'20.11.30)

< 연도별 K-OTC 기업현황 >

구 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11.30
거래기업수	117	128	138	119	126	135	134
등록	48	42	29	30	32	30	32
지정	69	86	99	89	94	105	102
신규기업수	71	30	16	6	18	16	11
퇴출기업수	10	19	6	25	11	7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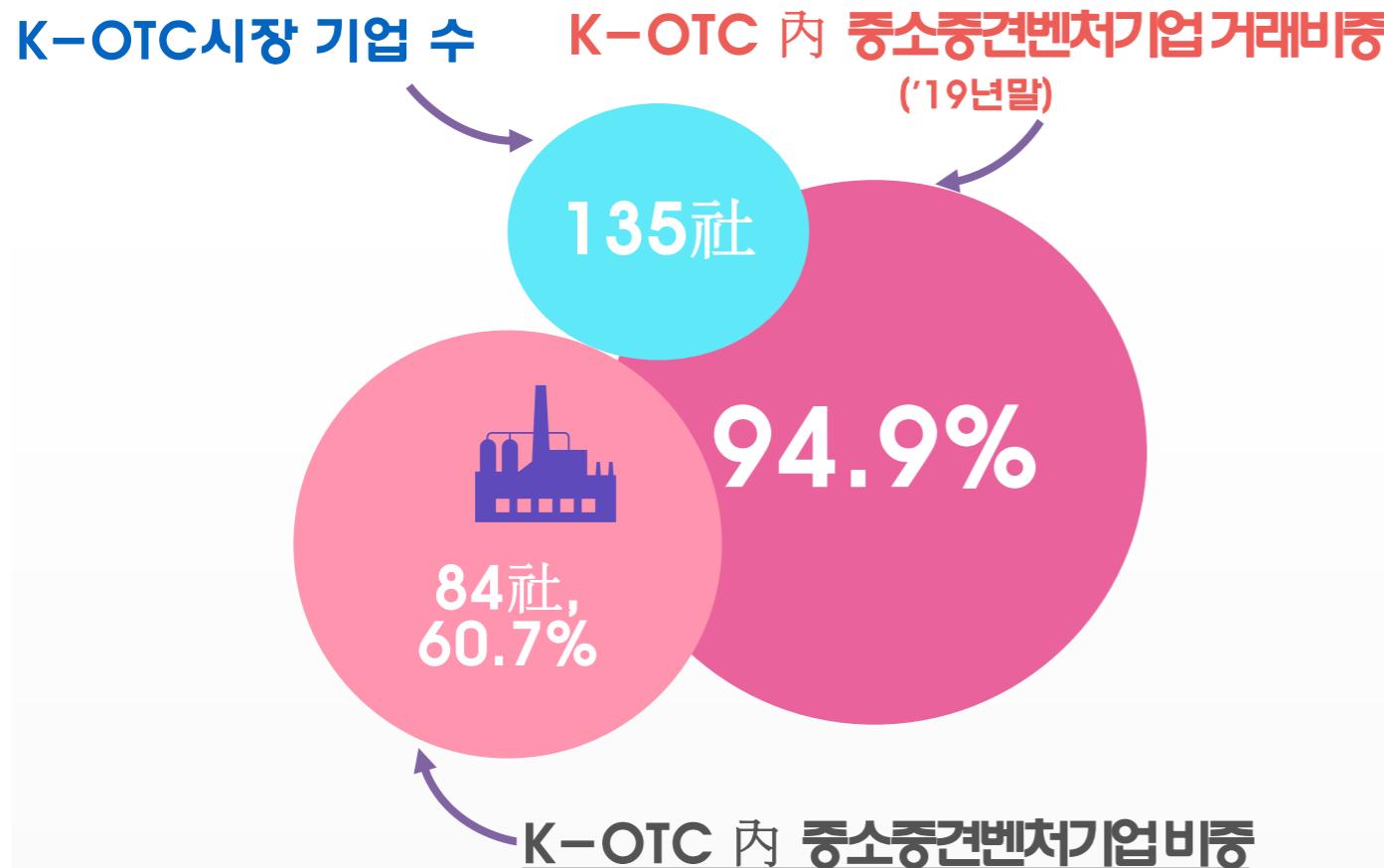
< 연도별 시장규모 현황 >

구 분	'14년말	'15년말	'16년말	'17년말	'18년말	'19년말	'20.11.30
일평균거래대금(억원)	23.9	9.0	6.5	10.9	27.7	40.3	50.2
시가총액(조원)	12.7	11.1	10.7	14.2	14.5	14.3	1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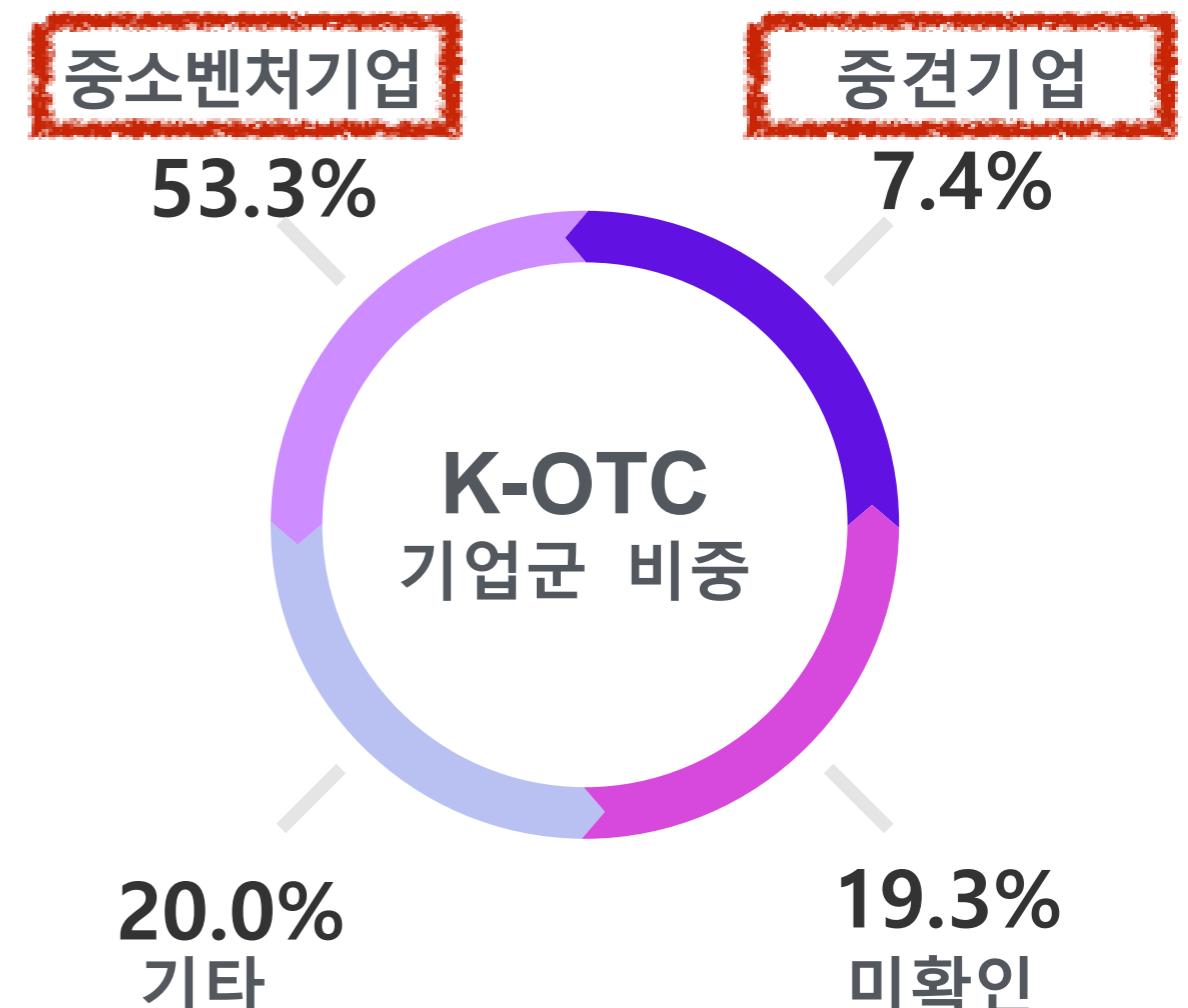
* 일평균거래대금은 해당연도(단, 2014년은 K-OTC 개설 후) 동안의 평균 거래금액, 시가총액은 해당기간 말일 기준

K-OTC시장은 '17년 이후 지속 성장 중

주주 및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지며 기업 수와 투자자 수는 점차 확대



중소벤처	72社
증권	10社
기타	27社
미확인	26社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증권기업) 1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증권기업
 - (기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 집단) 소속회사 및 금융회사 등
 - (미확인) 현 상황에서 기업군 파악이 불가한 20여社
- ※ 상기 기업군은 '19년 사업연도 기준 추정 데이터임

벤처기업 1社당 평균 투자금액은 26.6억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
한편, 국내 VC의 회수경로는 장외매각이 전체의 37.5%를 차지

< 벤처투자 현황 >

(단위 : 억원, 개사)

구 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평균 투자금액	20.0	18.1	18.8	24.5	26.6
업체수	1,045	1,191	1,266	1,399	1,608

< 회수경로별 비중 >

(단위 : 억원)

구 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IPO	2,844	2,882	2,338	2,825	3,384 25.2%
M&A	172	374	331	408	69
프로젝트	1,945	2,245	1,661	2,192	2,217
장외매각 및 상환	주식	4,477	4,385	4,852	5,303 5,033 37.5%
	채권	1,967	1,220	1,181	1,362 1,573
기타	370	542	455	680	1,146
합계	11,774	11,647	10,820	12,770	13,421

K-OTC시장에서
거래되는 경우

비상장상태에서도 중소·벤처기업의 투자회수가 용이하고,
기업의 적정가치 평가를 통해 상장시장으로 안정적 진입 가능

K-OTC에서 시작하여 상장까지 연착륙한 기업들 지속 출현
현재 이전상장을 계획 중인 다수의 기업들 거래 중

<K-OTC 시장을 거쳐 상장한 기업 현황>

구분	종목명	매매개시일	상장일	K-OTC 매매개시일 거래가	K-OTC 최종거래가	공모가	상장일 종가	비고
유가증권	삼성SDS	'14.08.25	'14.11.14	238,000	377,500	190,000	327,500	
코스닥	우성아이비	'06.07.10	'15.03.20	745	6,400	-	-	SPAC합병
코스피	아이엠투자증권	'14.08.25	'15.06.04	7,240	8,500	-	-	피흡수합병(메리츠종금)
유가증권	미래에셋생명	'14.08.25	'15.07.08	8,530	9,170	7,500	7,240	
유가증권	제주항공	'14.08.25	'15.11.16	7,190	48,550	30,000	48,100	
코넥스	인산가	'08.09.22	'15.12.21	1,245	3,065	2,420	2,080	
코스닥	에이치엘비제약 (舊 메디포럼제약)	'14.12.23	'15.12.21	2,925	11,250	6,500	12,000	
코스닥	팍스넷	'15.04.24	'16.08.01	3,000	10,800	5,200	12,550	
코스닥	카페24	'14.08.25	'18.02.08	2,015	94,100	57,000	84,700	코스닥 테슬라 상장 1호
코스닥	파워넷	'15.04.24	'18.06.07	1,420	13,250	6,500	7,750	
코스닥	웹케시	'14.12.23	'19.01.25	4,180	31,450	26,000	28,500	
유가증권	지누스	'14.09.16	'19.10.30	4,000	79,600	70,000	93,000	'05.5월 코스피 상장폐지
코스닥	피피아이	'19.06.20	'19.12.26	6,550	8,660	7,000	9,630	
코스닥	서울바이오시스	'19.05.10	'20.03.06	8,320	11,650	7,500	11,100	
유가증권	에이플러스에셋	'20.4.23	'20.11.20	4,815	9,900	7,500	6,880	



II. Kotc 개요



Stock Market In Korea



K-OTC
시장의 특징

1.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국내 유일한 제도권 장외주식시장
2. 비상장주식의 안전하고 편리한 거래 지원
3. 소액주주 양도소득세 면제('18.1월), 증권거래세 인하('17.4월 & '19.6월)

1. 금융투자협회 소개

설립근거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종전 증권업협회, 자산운용협회, 선물협회가 합병하여 설립

설립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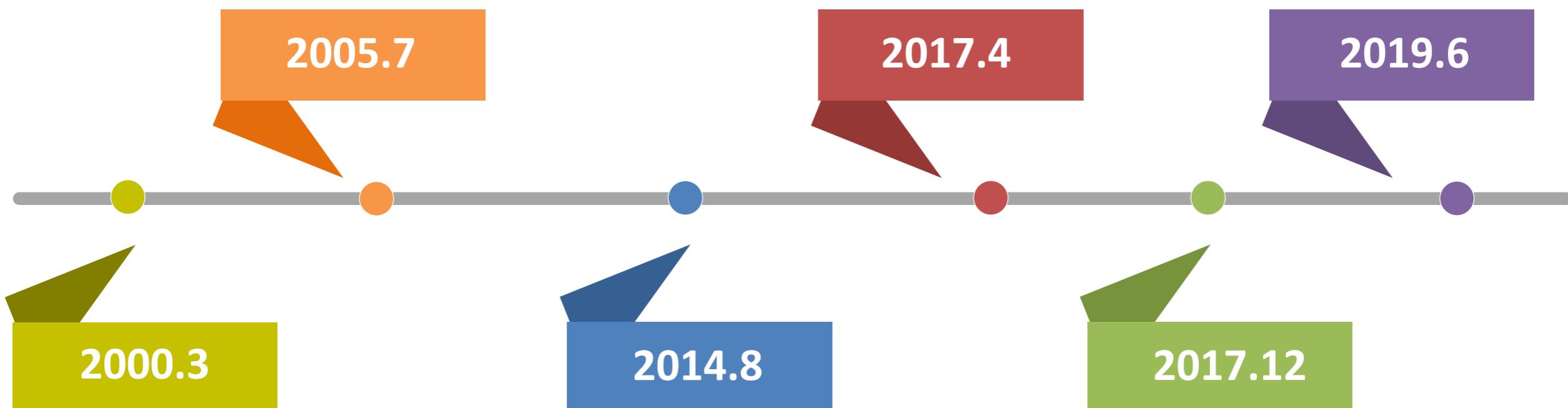
- ▣ 회원 상호간의 업무질서 유지 및 공정한 거래를 확립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

주요업무

- ▣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 발전을 위한 정책 제언
 - ▣ 투자자보호 및 회원 간 자율규제 업무
 - ▣ 금융투자업 관련 교육 연수 및 자격시험 운영 업무
 - ▣ 주식(K-OTC) 및 채권 장외시장(K-BOND) 관리 업무 등
- ※ 협회는 '87.4월 주식장외시장을 개설해 코스닥(KOSDAQ) 시장으로 육성하여, '05.1월 통합 한국거래소(KRX)로 이관 시까지 약 17년 간 운영

프리보드(Freeboard) 출범

- ✓ 「프리보드」란 이름으로 시장명칭 변경
- ✓ 프리보드 벤처기업의 소액주주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시행



장외주식 호가중개시장(제3시장) 개설

- ✓ 비상장기업에 자금조달 기회 및 유동성 부여
- ✓ 비상장주식 매매의 편의성 및 결제안정성 도모
- ✓ 비상장주식의 불공정, 사기 거래행위로부터 투자자보호

K-OTC시장 출범

- ✓ 비신청 지정제도 신설, 진입·퇴출 요건 강화, 매매제도 개선, 투자자 유의사항 고지제도 신설, 부정거래 예방조치 제도 도입 등

K-OTC시장 중소·중견기업 양도세 면제 관련 소득세법 개정

- ✓ ('18.1월 시행)

III.

K-OTC 시장





K-OTC 시장 등록 및 지정 제도

등록 또는 지정이란?

-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비상장주식을 K-OTC시장의 호가중개 종목 목록에 올리는 행위
-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의 상장과 유사한 개념

K-OTC시장 법인 구분

<등록기업부>

기업의 신청에 따라 협회가 매매거래대상으로 등록한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기업 (공시의무 有)

번호	종목코드	회사명	전화번호	소속	업종
1	201150	교육혁명	053-358-7992	등록	교육 서비스업
2	237010	끄렘드라끄렘	02-511-6693	등록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3	227680	뉴젠훌딩스	02-1544-7230	등록	출판업
4	026970	대백저축은행	053-742-3301	등록	금융업
5	224850	더치카페	02-851-3390	등록	음료 제조업
6	222070	동명스틸	031-680-7011	등록	1차 금속 제조업
7	026710	동진건설	054-974-9694	등록	종합 건설업
8	013900	두원중공업	02-510-7500	등록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9	043500	드림텍	041-532-4070	등록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0	316640	마이지놈박스	0327156335	등록	출판업
11	130480	모아정보기술	1566-1291	등록	금융업
12	066870	비트로시스	054-635-4533	등록	식료품 제조업
13	168570	산타크루즈컴퍼니	02-3446-8775	등록	정보서비스업

<지정기업부>

기업의 신청 없이 협회가 직접 매매거래대상으로 지정(비신청 지정제도)한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지정기업은 K-OTC시장에서 공시를 하지 않으며, 협회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예탁 결제원 증권정보포털 등에 공개된 지정기업 정보에 따라 시장 조치 등을 취함

번호	종목코드	회사명	전화번호	소속	업종
1	066400	HANATOURIST	1577-1212	지정	사업 지원 서비스업
2	134610	HK자산관리대부	02-3468-4011	지정	금융업
3	104770	IBK투자증권	1588-0030	지정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4	143500	KBS미디어	02-6939-8045	지정	영상 · 모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5	104230	LS전선	02-2189-9114	지정	전기장비 제조업
6	001970	SG신성건설	02-3459-2000	지정	종합 건설업
7	003340	SK건설	02-3700-7114	지정	종합 건설업
8	000800	경남기업	02-2210-0500	지정	종합 건설업
9	123900	골든블루	051-727-2883	지정	음료 제조업
10	068750	곰앤컴퍼니	02-2193-5700	지정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11	079180	내일신문	02-2287-2300	지정	출판업

**자본전액잠식
상태가 아닐 것**

- **감사보고서상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본전액잠식 상태가 아니어야 함**
(이 경우 최근 사업연도말 이후부터 등록신청일까지의 유상증자금액 및 재산 재평가에 의하여 자본에 전입할 금액을 반영)

**매출액이
5억원 이상일 것**

- **감사보고서 상 최근 사업연도의 매출액(재화의 판매와 용역의 제공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5억원 이상이어야 함** (단, 크라우드펀딩 금액이 2억원 이상인 크라우드펀딩기업은 3억원 이상)

감사의견이 '적정'일 것

-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 감사의견이 '적정'이어야 함**

**통일규격증권이거나,
전자등록된 주식일 것**

- **한국예탁결제원의 「통일규격증권 등 취급규정」에 따른 통일규격증권을 발행하거나,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식을 전자등록하여야 함**

**명의개서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있을 것**

- **매매거래에 따른 주주명부 및 주권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명의개서대행회사^{*}로 하여금 증권사무를 보도록 하여야 함**
- * 주권 발행회사와 계약을 체결해 유가증권의 명의개서 업무 등 (주주명부 등 관리, 주식의 질권 등록 및 말소 등)을 수행하는 회사

**주식양도 제한이
없을 것**

- **원활한 주식유통을 위해 회사 정관 등에 주식양도에 대한 제한이 없어야 함**

**등록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등록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등록해제 사유 중 既등록요건과 동일한 사항, 진입 후에 적용 가능 사항 등은 제외)

지정기업 = 신규 등록 요건 + 신규 지정 요건

< 지정을 위한 요건 >

최근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 등을
공시하고 있을 것

공모(모집/매출)
실적이 있거나,
K-OTC 지정동의서를
제출할 것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지 않을 것

- 자본시장법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으로서 최근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최근 반기의 반기보고서 포함)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공시하고 있어야 함
- 해당 주권과 관련하여 과거 모집하거나 매출한 실적이 있거나,
- 자본시장법령(法 제119조, 法 제130조, 습제1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증권신고서나 소액공모공시서류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사실이 있거나,
- 해당 법인이 K-OTC시장 지정동의서를 협회에 제출한 사실이 있어야 함
- 해당 주권이 증권시장(한국거래소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에 상장되어 있지 않아야 함

< 신규등록 및 신규지정 요건 정리 >

구분	등록법인	지정법인
개요	기업 신청에 따라 협회가 주권을 K-OTC시장에 등록	기업 신청없이 협회가 직접 매매거래 대상 주권을 지정 (→비신청지정제도)
자기자본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본전액잠식 상태가 아닐 것	
매출액	5억원 이상(최근사업연도기준. 단, 크라우드펀딩기업의 경우 3억원 이상)	
감사의견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일 것	
주식유통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규격주권일 것 - 명의개서대행회사와 명의개서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있을 것 - 정관 등에 주식 양도에 대한 제한이 없을 것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사업보고서 DART 공시(반기보고서포함) - 공모실적이 있거나 지정동의서를 제출하였을 것

등록 및 지정
해제사유<공통 해제 사유>

- ▣ 기업의 계속 존립이 불가능한 경우
 - ▶ 최종부도, 피흡수합병, 6개월이상 주된 영업 정지, 영업전부 양도 등
- ▣ 자본전액잠식
- ▣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 1억원 미만 또는 최근 2개 사업연도 연속 매출액 5억원 미만
- ▣ 감사의견 부적정, 거절, 한정(단, 한정은 1년 유예)
- ▣ 결산기 정기공시서류 미제출
- ▣ 반기 정기공시서류 5년간 2회 미제출
- ▣ 거래소 상장,주식유통 기본요건 미충족

<해제 관련 소속부별 특칙>

- ▣ (등록법인) 불성실공시 2년간 6회, 분산기준 미달*, 등록해제신청
 - * 소액주주수 50인 미만 또는 소액주주 지분율 총 1% 미만
- ▣ (지정법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이 아니게 된 경우

정리매매

- ▣ 등록/지정 해제 주권에 대하여 10영업일 이내의 정리매매기간 부여



K-OTC 시장 매매거래제도



주문방식

기본적으로 거래소시장 **상장주식 주문방식과 동일**(전화, 인터넷 등)

시장의 운영

매매시간 - 09:00부터 15:30이며, 동시호가 및 시간외시장은 없음

휴장일 - 토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 연말의 1일 및 이외 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가격제한폭

하루 동안에 가격이 변동할 수 있는 폭을 말하며,
K-OTC시장은 기준가격 대비 ±30%이내로 제한

신규 종목의 매매개시일에는 기준가격에 30%~500%를 곱하여 산출한
최저 최고 호가가격범위 내에서 호가를 접수

**매매기준
가격**

신규 종목의 **최초 매매개시일 기준가격은 주당 순자산가치로 함**

최초 매매개시일 이후의 기준가격

- 직전 영업일에 거래형성이 된 경우: 거래량 가중평균주가
- 직전 영업일에 거래형성이 되지 아니한 경우: 직전 영업일 기준가격
- 기타의 경우: 기준가격 산정기준을 고려하여 협회가 정한 가격이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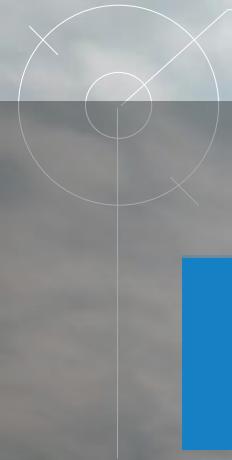
상장시장(KOSDAQ)과 거래제도 비교

상장시장(코스피, 코스닥 등)과 동일하게
HTS 등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비상장주식 거래 가능

	K-OTC	KOSDAQ
매매방식	다자간 상대매매	경쟁매매
매매거래시간	09:00 ~ 15:30 (시간외시장 없음)	좌동(시간외시장 운영)
호가수량단위	1주	좌동
가격제한폭	± 30%	좌동
위탁증거금	현금 또는 유가증권 100%	금융투자회사 자율
결제전 매매	매매체결기능 有	좌동
수도결제	매매체결일로부터 3일째 되는 날(T+2)	좌동
위탁수수료	금융투자회사 자율	좌동



KOTC 시장 공시제도 개요



공시제도의 의의

- ◆ 기업으로 하여금 주요 기업내용을 신속 정확하게 투자자에게 공개하게 함으로써 투자자가 기업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여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투자 의사 결정을 하도록 하여, 증권거래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투자자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

공시제도 개요

- ◆ K-OTC시장 등록법인은 K-OTC시장에서 정기공시, 수시공시 및 조회공시를 할 의무 있음
- ◆ K-OTC시장 지정법인은 K-OTC시장에서 공시를 할 의무가 없음. 다만, 지정법인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이므로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을 통하여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 및 주요사항보고 등을 제출할 의무 있음

등록법인 공시의 주체 및 방법

◆ 공시주체

공시의 주체는 등록법인. 등록법인은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를 각 1명씩 지정하여야 하고 이들은 공시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등록법인과 K-OTC시장 그리고 투자자를 연결하는 공식 채널임을 인지하여야 함.

◆ 공시방법

- K-OTC시장의 공시는 간접공시로서 등록법인이 문서 또는 FAX의 방법으로 협회에 공시사항을 신고(관련 증빙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면, 협회가 해당 내용을 K-OTC시장에서 공시함.
- 투자자는 K-OTC시장 공시내용 코스콤 전산망, 금융투자회사 HTS 및 K-OTC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확인


정기공시**▣ 결산기 정기공시**

- ▶ 발행인에 관한 사항*, 감사보고서(90일 이내)
- ▶ 주주명부 명부요약표, 중소기업여부 신고서
(정기공시서류 제출일 다음날부터 5영업일 이내)

▣ 반기 정기공시

- ▶ 발행인에 관한 사항*, 감사보고서(45일 이내)

* 발행인에 관한 사항 : 호가중개시스템을 통한 소액매출공시서류 또는 사업보고서


수시공시**▣ 회사의 주요경영사항(17개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신고**

- ▶ 부도, 주된 영업정지, 증자 등의 결정시: 사유발생일 당일 신고
- ▶ 사업목적 변경, 주식분할/병합, 주식배당, 최대주주 변경, 회사채 발행 등의 결정시
: 사유발생일로부터 1일 이내


기타사항

- ▣ 협회는 수시공시사항, 이에 준하는 사항에 대한 풍문 또는 보도가 있는 경우
사실 여부 확인 요구(1일 이내 회신)
- ▣ 주가 급등락 시 중요정보 유무의 확인 요구 (1일 이내 회신)

정기공시서류**미제출****수시공시 및
조회공시
불이행**

- ▣ 결산기 정기공시서류 제출기한 내 미제출(90일 이내)
 - ①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및 호가중개시스템상 공표
 - ② 매매거래정지 : 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제출일까지
 - ③ 투자유의사항 공시
 - ④ 등록해제 : 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30일 이내 공시서류 미제출 시

- ▣ 반기 정기공시서류 제출기한 내 미제출(45일 이내)
 - ①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및 호가중개시스템상 공표
 - ② 매매거래정지 : 제출기한의 다음 영업일(1일)
 - ③ 투자유의사항 공시 : 최근 4개 사업연도에 1회 이상 제출기한 내 미제출한 경우
 - ④ 등록해제 : 최근 4개 사업연도에 1회 이상 제출기한 내 미제출한 법인이 최근 반기에 반기 정기공시서류 미제출 시

- ①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및 호가중개시스템상 공표
- ② 매매거래정지 : 1영업일
 - 협회가 등록해제 사유에 해당하는 내용의 조회공시를 요구하는 경우 조회공시를 요구한 때부터 조회공시에 대한 결과를 공시한 날까지 매매거래정지
- ③ 투자유의사항 공시 : 정기공시, 수시공시, 조회공시 불이행을 포함하여 최근 2년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횟수가 4회 이상인 경우
- ④ 등록해제 : 정기공시, 수시공시, 조회공시 불이행을 포함하여 최근 2년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횟수가 6회 이상인 경우



IV. K-OTC 시장 진입 기대효과



기업

- 신뢰할 수 있는 시장에서의 주권 거래로 기업 인지도 및 이미지 제고
- 금전적 비용 등의 부담 없이 「상장 Test Bed」로 활용
- IPO시 K-OTC 거래가격을 공모가격 산정에 활용
- 중간회수시장의 존재로서 원활한 자금조달에 도움
- K-OTC 기업 대상 각종 혜택 제공

주주

- 증권사(HTS, MTS 등)를 통한 안전하고 편리한 거래
- 매매 호가 집중에 따른 투명한 가격 형성
- 낮은 증권거래세율 및 양도소득세 면제 등의 세제혜택

1. 기업 인지도 및 이미지 제고

■ 신뢰할 수 있는 제도권 시장인 K-OTC에서의 주권 거래로 주주 및 투자자 대상 기업 인지도 제고

- 증권사를 통해 안전하고 편리하게 비상장주식 매매가 가능하고, 세제혜택도 부여되어 주주와 투자자들이 선호
- 국내 유일 제도권 장외주식시장

2. 「상장 Test-Bed」로 활용

■ 시장 진입 및 유지를 위한 금전적 비용 또는 추가적인 부담이 없어, 상장을 목표로 하는 기업은 「상장 Test-Bed」로서 K-OTC시장 활용 가능

- 지정법인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 외 추가되는 의무사항 無
(단, K-OTC시장 등록기업의 경우 공시의무 존재)

3. K-OTC 거래가격을 공모가격 산정에 활용

■ IPO를 위한 상장주관사(증권사)와의 공모가격 협상 시, 공신력 있는 K-OTC시장 거래가격을 참고가격으로 활용

- 사설수단을 통한 장외거래 보다 투명하고 거래량이 많아 상대적으로 신뢰성이 높으며, 상장 후 주가관리에도 유리
- IPO 소재 노출 시 일반적으로 주가 상승 경향을 보이며, 이는 향후 IPO 마케팅에도 긍정적으로 작용

4. 원활한 자금조달에 도움

■ 증자 등 자금조달 시 K-OTC를 통한 회수가 가능함으로 인해 원활한 자금조달에 도움

(단위 : 억원)

구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합계	비중
유상증자	3,389	7,929	2,818	2,645	3,989	1,954	3,981	26,634	96%
CB	-	50	-	-	179	40	326	595	2%
BW	10	10	25	24	13	516	67	664	2%
합계	3,399	7,989	2,843	2,599	4,181	2,510	4,374	27,893	100%

* 14년 8월 시장 개설 이후부터 20년 11월 말 기준

* 유상증자는 보통주, 우선주를 포함

* CB : 전환사채, BW : 신주인수권부사채

5. K-OTC 기업 대상 각종 혜택

▶ 기업설명회(IR) 개최 : 비상장기업의 투자유치 역량 강화 및 원활한 자금조달 지원

■ 기관투자자·언론 등 대상으로 매년 개최하는 [K-OTC IR] 참여를 통한 기업 홍보 기회 제공

- IR 자료작성, 발표스킬 등 IR교육, 1:1 IR 컨설팅 및 자본시장교육 등 관련 사전교육 지원
- 기업설명회, 1:1 상담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기관투자자·언론 대상 IR 개최

▶ 「투자용 기술분석보고서」 작성 지원 :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중견)기업의 정보부족 해소

■ 기술보증기금이 평가·분석하는 '투자용 기술분석보고서' 작성 지원

- 기업이 보유한 기술에 대하여 전문기관(기술보증기금)의 객관적 평가와 분석 결과가 담긴 보고서를 기술사업화를 위한 자금조달(투자유치, M&A 등) 등에 활용하고자 하는 K-OTC 중소(중견)기업 지원
- 분석평가 비용(5백만원 상당)을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금융투자협회, 기술보증기금이 공동 부담
- (기업은 제세공과금 30만원만 부담)

▶ IR 담당자 대상 공시 또는 자본시장 관련 교육 및 설명회 개최

▶ 언론을 활용한 기업홍보 필요 시 보도자료 배포 등 지원

1. 안전하고 편리한 주식 거래수단 제공

- 증권사(HTS, MTS 등)를 통해 거래가 가능하여 주주와 투자자에게 거래의 안전성 및 편의성 제공
 - (주문) HTS(홈트레이딩시스템), MTS(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 전화
- 사인(私人)간 협상 기반 '1:1 상대매매' 거래방식에서 발생하는 결제불이행, 사기 등의 불법행위에 노출될 가능성이 없음
 - 사설수단을 통한 장외거래는 자본시장법을 적용 받지 않아 주주와 투자자들을 위한 보호 장치가 없음

2. 투명한 가격 형성

- 하나의 시장에 주권거래가 집중돼 가격이 형성되므로 주주·투자자는 투명한 가격으로 거래 가능
 - K-OTC시장은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여 '다자간 상대매매 방식'으로 거래
 - * 매도호가와 매수호가 일치 시, 일치하는 수량 범위 내에서 자동매매체결
- 사설수단(인터넷사이트,장외브로커 등)을 통해 거래 시 가격정보가 불투명하고, 주주 · 투자자 피해 가능성이 높음
 -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비상장주식 허위정보 제공 및 판매사건, '필립에셋' 비상장주식 사기적 부정거래 사건 등

3. 세제혜택

▶ 낮은 증권거래세율(0.25%)

■ 주식 매도 시 부과되는 증권거래세는 0.25%로, 일반 장외거래 시(0.45%)보다 낮은 세율 적용
(→코스닥시장과 동일 세율)

- K-OTC시장은 결제시점에 한국예탁결제원이 원천징수하여 편리하게 납부되는 반면,
일반 장외거래는 매도인이 관할 세무서에 직접 신고하여 납부

▶ 소액주주 양도소득세 면제 (중소·중견·벤처기업 限)

■ K-OTC시장에서 주식 양도 시 다음의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어
주주의 금전적 편익이 극대화

- ① 벤처기업의 소액주주가 K-OTC시장을 통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 양도 시
- ②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소액주주가 K-OTC시장을 통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 양도 시

■ '23년부터 도입·신설 예정된 금융투자소득 과세와 관련, 상장주식, 공모국내주식형펀드와 함께
K-OTC를 통한 중소·중견기업 비상장주식이 기본공제(年 5천만원) 대상에 포함됨

구분	K-OTC	KONEX
통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 수 : 134사 일평균 거래대금 : 50.2억원 ('20.1.1~'20.11.30 기준) 시가총액 : 16.1조원 ('20.11.30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 수 : 143사 일평균 거래대금 : 45.9억원 ('20.1.1~'20.11.30 기준) 시가총액 : 6조원 ('20.11.30 기준)
진입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정기업부) 지정요건 충족 시 협회에 별도의 절차 없이 협회가 직접 지정 (등록기업부) 서류 구비 및 등록신청 후 요건 검토 및 실사 후 등록 승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정자문인 선임 절차를 거친 후 외부감사, 기업실사 및 상장적격성 심사를 통해 상장 승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자문인 1社와 선임계약 체결 뒤 해당 지정자문인이 상장적격성 외형요건 심사(질적요건은 거래소가 심사)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매출액, 순이익 등의 재무요건 미적용
투자자	제 한 없 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문투자자 및 일반투자자(3천만원 이상 기본예탁금으로 예탁한 일반투자자 限)
공시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정기업부) K-OTC시장에 별도 공시의무 없음 (등록기업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기공시) 결산기, 반기 정기공시 - (수시공시) 주요 경영사항 17개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기공시) 결산기 사업보고서, 반기 기업현황보고서 또는 반기보고서 의무공시 항목 35개 (기타) 반기 1회 이상 기업설명회 개최
비용	별도 비용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장 시 5천만원, 지정자문업무 평균 연 5천만원 상장수수료 및 연부과금
코스닥 상장 이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장심사수수료 및 상장수수료 면제 상장예비심사 단계에서 우선심사 혜택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코스닥 상당특례로서 신속이전성장(Fast Track)제도운영 (신속이전상장 限) 기업계속성심사 면제 및 일정요건 충족 시 경영안정성 심사 추가 면제, 심사기간 단축 등



K-OTC
THANK YOU

[문의] 금융투자협회 K-OTC부 이환태 부장 / 02) 2003-9140, htlee@kofia.or.kr